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난 해 12월 1일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지분 중 99%(52조원)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딸 출산을 맞아 밝힌 기부 계획에서 그는 자선회사를 세운 뒤 주식을 기부하고, 이 회사는 맞춤형 학습, 질병 치료, 강한 공동체 만들기, 이를 위한 사람들 연결하기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보름 쯤 지난 뒤 미국 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의 전설 마이클 조던도 통큰 기부 행위에 합류했습니다. 시카고 지역 23개 비영리단체(조던의 등번호가 23번)에 기부한다면서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시카고 트리뷴은 '수백만 달러는 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업체 두 곳과 상표권 침해 문제로 6년간 법정 다툼 끝에 받은 합의금입니다. 조던은 "비영리단체들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교육, 웰빙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떨떠름하게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커버그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지배권을 넘기는 절세 효과를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자들의 기부는 결국 그 사회를 장악하려는 자본주의(philanthrocapitalism·philanthropy와 capitalism의 합성어)적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지요.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는 쌓여 있다고 봅니다.

14세기 백년전쟁 때의 일화입니다. 잉글랜드 군에 포위된 프랑스 칼레의 시민들이 1년간 저항했습니다. 결국 대학살 직전에 놓인 칼레의 시민들에게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는 지도급 인사 6명을 넘기면 모든 시민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등 지도급 인사 6명이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오귀스트 로댕의 유명한 조각상 '칼레의 시민들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남을 위한 기부 같은 행위나 희생정신이 발휘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고위층 인사

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말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의 공공봉사나 기부는 의무이자 명예로 인식되었고,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전쟁이나 전투에 참여하는 전통은 세워졌지요. 책임과 희생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신문·방송·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들은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갑질, 을의 분노, 금수저·흙수저, 양극화, 진영 논리, 귀족 노조, 철포 세대... 뭔가 임계점을 향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상의 많은 부분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갑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재不在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지도층을 무조건 공격만 하는 일부 편향된 수준 낮은 논리는 무시하기로 하지요. 하지만 탈세, 편법 상속, 부의 천박한 과시, 유력자들의 가족 취업 압력 등등 지도층 인사들이나 기득권층의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위들은 보통 사람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고귀한 사람들만 하는 거창한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은 왕이나 귀족이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 매일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에서 조금 더 책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살피보고 배려하는 행위, 말하자면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부 행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NGO활동가가 얘기하더군요. 기부는 사회적 에너지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행위이고, 그러면 사회가 훨씬 강해진다고. 여기서 기부는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 책임을 다하는 것, 우월한 자가 조금 더 양보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의미였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소소한 생활 속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그래야 2016년이 조금은 덜 팍팍해지고, 조금은 더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
매일 벌어지는 소소한
일상에서 조금 더 책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위를
살피보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

